



#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9년 12월 15일 | 총권 50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다락골길 164-24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 우리도 해 봐요, 학교도서관 소식지 만들기!

몇 해 전 학도넷에서 학교도서관 소식지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도서관소식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소중한 일상까지 기록으로 남으니 우리 도서관의 위계가 됩니다. 한 30년 쯤 후에 보아도 우리 도서관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움직였는지 그 숨결이 이어질 겁니다.

“도서관 소식지 만드니까 무엇이 좋아요?” 하고 물었어요.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 담당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말합니다.

“소식지 만드는 일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니 도서관 주인이 많아져서 좋아요.” “직접 와 보지 않으면 모르는 도서관은 점! 소식지는 그 점과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예요!!” “소식지에 책 안내를 하니 먼지만 쌓였던 책들이 활짝 살아나요.” “소식지가 언제 나오는지, 이번에는 무슨 내용이 담길지 궁금하고 기다려져요.” “도서관과 책에 대해 생각이 변했어요.” “아이들이 슬금슬금 찾아와요.” “새로 나온 책을 알 수 있어요.” “학부모들의 글을 실어 마음을 표현하는 장이 되었어요.” “학부모와 졸업생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연결통로가 돼요!” “아는 사람들의 글을 읽으니 새롭고 즐거워요.” “학교와 우리 도서관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요.”……

### 그런데 누가 만들어요?

“어휴 그 일이 말이 쉽지 만만치 않은데 누가 한답니까?”하고 손사래를 치시기도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동력이 생깁니다. 혼자라면 힘이 들고 더됩니다. 학생, 졸업생, 동료 교사, 학부모, 지역에 계신 어른들로 기획단을 꾸려 보세요. 소식지 기획회의를 열어 주제도 정하고, 원고 청탁과 취재, 편집 일을 함께 나눠하다 보면 반짝이는 생각들이 모아지고 만드는 과정을 함께 누리니 참여자들에게도 신선한 활력이 되구요.

### 몇 면으로 내지요? 발행 주기는요?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아요. 처음에는 학교 소식지 한 면을 도서관 소식으로 수줍게 내다가 힘이 생겼다면 독립하는 거지요. 아이들에게 소식지 이름도 공모하구요. 2쪽, 4쪽, 8쪽…… 늘려나가 보는 거지요. 발행주기도 달마다 내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계절별로 내거나, 일 년에 한 번 내는 경우도 있구요. 하지만 꾸준히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획단, 기자단이 꾸려지면 훨씬 안정적으로 낼 수 있어요.

### 우와! 이렇게 다양한 꼭지들이!

우선 우리 둘레 사람책들을 필진으로 발굴하고 취재해 봐요. 학교 안의 다양한 구성원, 우리 학교 기사님, 학교 앞 슈퍼주인…… 관심을 갖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기도 하지요.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릴 적 독서환경은 어땠는지? 처음 만난 도서관은? 나를 책임기로 이끈 사건이나 사람, 내가 들은 옛이야기, 요즘 읽는 책은? 직접 글을 받아도 좋고 학생 기자가 취재할 사람을 찾아가서 묻고 사진도 찍어 주는 거지요.

돋보이는 독서활동을 하는 교실을 탐방해도 좋겠어요. 3학년 5만 도서관 활용수업 엿보기, 교실에서 책 읽어 주는 우리 선생님, 소박하지만 열심히 책읽기를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소개하기도 하구요. 학교 안팎의 독서문화 소식을 실는 것은 기본이지요.

소식지 발행으로 도서관 이용률이 10배로 늘어난 학교도 있다가니까요. 시작이 반이라는데 우리 함께 해봐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인터넷세상이라고 그렇게 안된다는 모든 걸림돌을 뛰어넘어 종이 소식지로 도서관 주인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김경숙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상임대표

##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방정환 특집 서평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금주, 김경진, 정룡, 박금홍, 전미현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요.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 아이들의 사랑방 “마전 꿈의 정원”

- 김정윤(경기 안성 마전초등학교 사서)

## 아이들이 등교하면 가장 먼저 오는 곳, 마전 꿈의 정원 도서관

학교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은 ‘마전 꿈의 정원’ 도서관이다. 안성마전초등학교는 학년별 한 학급만 있는 전교생 70명의 작은 학교다. 전교생 대부분이 스쿨버스로 통학하고 부모님이 출근하면서 학교에 데려다주기 때문에 아침 7시 50분이면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이 등교하면 바로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7시 40분이면 문을 연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클래식 음악을 틀고, 그림책이 있는 온돌방에 바닥 난방을 한다. 등교하는 아이들이 클래식 음악소리와 환한 불빛에 이끌려 도서관으로 들어온다. 하나둘씩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추운 몸을 녹이며 쿠션에 기대 부족한 잠을 더 자기도 하고, 친구와 퐁퐁하면서 수다를 떨고 책도 읽는다. 이런 모습 때문에 ‘마전 꿈의 정원’ 도서관 아침은 조금은 시끄럽지만 활기차다.

## 매일 아침이 즐겁다 ~ 재미있는 십자말풀이

아이들이 등교하는 8시부터 수업 시작 전까지 1시간 정도 여유시간이 생긴다. 아침시간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다 십자말풀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았다. “혼자 풀면 지식이 머리 속에 쑥쑥~ 친구랑 같이 풀면 우정이 쑥쑥~ 다 같이 함께 풀면 웃음이 하하~”라는 안내문처럼 아이들이 도서관에 모여 십자말풀이를 재미있게 한다. 매일 아침 문제지 25장을 복사해서 사서 책상 위에 놓아둔다.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은 문제지를 가져가서 풀면 된다. 풀다가 모르는 문제는 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 다 풀 문제지는 이름을 써서 제출한다. 2교시가 끝난 후 복도에 정답과 정답자 이름을 적어 붙여 놓는다.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사탕이나 젤리를 한 개씩 주고, 다 맞춘 정답자에게는 조금 더 큰 간식을 선물로 준다. 간식을 줄 때는 자신의 문제지를 주고 틀린 단어를 꼭

확인하게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게 되고, 사전을 직접 찾아보면서 정확한 사용법도 알 수 있다.

## 매주 화요일 책이 있는 영화관 ~ 마전 꿈의 정원 도서관 영화 상영

매주 화요일 7~8교시에는 도서관이 영화관으로 변한다. 아이들 대부분이 시내와 떨어진 곳에 살고 가정형편상 영화관에 자주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도서관에 오는 화요일 오후에 DVD로 영화를 보여준다. 1~6학년 모두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DVD를 주로 선택한다. 책을 원작으로 있는 영화나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 상영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의자에 앉거나 온돌방에 누워서 보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영화를 보는데 이 시간을 무척 좋아한다. 떠드는 아이가 있으면 서로 ‘조용히 하라’ 하고, 아는 노래가 나오면 전교생이 다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한다.

## 매주 수요일은 재미있는 우리 창작동화 함께 읽기

매주 수요일에는 사서가 1, 2학년에게 우리 창작동화를 읽어준다. 온돌방에서 읽어주는데, 이때 자기가 제일 편한 자세로 들을 수 있다. 누워도 되고, 엎드려도 된다. 다만, 귀는 활짝 열어 놓고, 다른 사람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한다. 읽어주는 동화는 우리나라 창작동화로 미리 전시해 놓은 책 중에서 북토크 진행 후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한다. 동화를 눈으로 혼자서 읽을 때 보다, 친구들과 같이 귀로만 듣는 것은 책 읽는 새로운 재미를 준다. 읽어주기가 끝나면 어떤 장면이 가장 재미있었는지 서로 이야기해보기도 한다. 그림책과 달리 귀로만 듣는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무척 재미있었다. 귀로만 들으니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자기가 읽은 책을 추천하는 주제전시 코너 “꼭 읽어봐!”

도서관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곳이 주제전시 코너다. 1학기에는 사서가 뽑은 주제별 책꾸러미를 전시했었다. 2학기에는 아이들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자신이 읽고 재미있었던 책을 소개하는 코너로 꾸몄다. 처음에는 6학년이 추천하는 “형님들이 추천한다. 친구, 동생들 꼭 읽어봐!”, 1학년이 추천하는 “동생들도 추천한다. 친구, 형님들 꼭 읽어봐!”, 2학년이 추천하는 “우리들도 추천한다. 친구들 꼭 읽어봐!” 순서로 전시하고 있다. 추천 책꾸러미는 학습만화와 참고도서를 제외한 6권을 기본으로 혼자서 또는 친구 2-3명이 함께 정한다. 책 한 권에 추천하는 소개글 2줄 이상 써서 책꾸러미를 만들면 된다. 그리고 책꾸러미가 선정되면 제출한 아이들 사진을 찍어 포스터와 전시물을 만들고 작은 선물도 준다. 아이들은 자신이 추천한 책이 전시되고 친구들이 읽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좋아한다. 책에 관심 없던 아이들도 친구가 추천하는 책은 유심히 보고 읽어본다. 12월에는 만화를 주제로 4학년 남자아이들이 직접 그린 만화와 재미있는 만화책, 만화와 관련된 책 등을 전시하려고 한다.

## 매일 매일이 재미있는 마전 꿈의 정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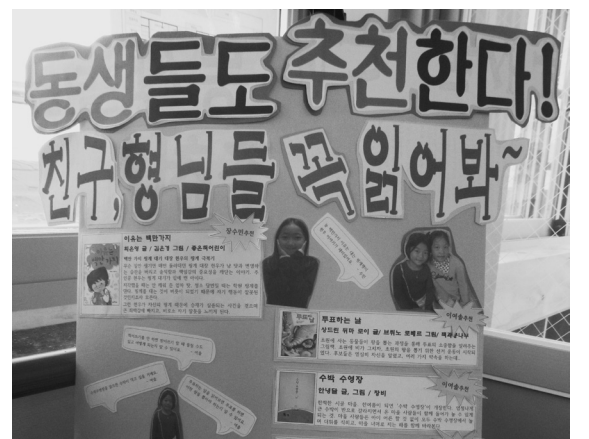
우리 학교는 매일 오후 도서관에 오는 시간이 학년별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 때와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주로 도서관에서 보낸다. 전교생이 적으니 하루에 한번은 모든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고 각자가 무슨 책을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다. 매일 오는 도서관이지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지 설레임을 갖고 올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비록 조용하지도 않고, 책을 많이 읽는 도서관 분위기는 아니지만 아이들 기억에 학교 도서관은 늘 재미있고 편안한 곳으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십자말풀이



우리동화 함께 읽기



아이들이 추천하는 책전시 포스터



# 학교도서관, 배우고 나누며 학부모들도 함께 성장한다

- 이재선(대구 진월초등학교 사서)

아~ 선생님 사고치지 마시라니깐요?, 또 일을 만들고 계시죠? 오늘도 전 도서관 동아리 엄마들께 한 소리 듣고 시작합니다. 혼이 나는 거냐고요? 아니요? 전혀 ~ 8년 동안 자꾸 일을 만들어 어머니들을 유혹했더니 이제 알아서 본인들이 일을 만들고 계신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북맘스 리딩” 저희 도서관 책 읽는 어머니들 동아리 이름입니다. 저희 학교도서관에선 학생이용자 보다 북맘스 동아리가 더 오래 계실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도서관 행사에서 북맘 동아리가 빠지면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건 안비밀입니다^^.

**3월**

지역 기관에서 동아리 지원사업 시행 시기가 옵니다. 이때부터 저희 도서관 북맘스 동아리분들은 머리를 맞대어 올해 배우고 싶은 수업과 강사를 섭외하고 회원모집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담임들과 북맘들이 배움 하신 수업으로 교실에서 학생들과 나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 계획을 미리 합니다.

1학년은 공공도서관에서 지원받은 그림책 놀이 수업, 5학년은 언론진흥재단 수업이 고정되어 있기에 이때부터 그 외 담임 선생님들의 각종 부드러운 회유, 귀여운 협박, 장난성 투정이 난무합니다. 본인 반, 학년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일명 작업들이 치열합니다.

**4월**

세계 독서의 날 행사를 보통 준비하시죠? 저희 학교는 또 북맘스 동아리가 맡아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 순번을 정해서 북북북 행사, 책갈피 만들기, 책만들기 등 여러 행사를 맡아서 아이들과 즐겁게 도서관 놀이를 만들어 주시는데 본인들이 즐기시는 듯 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5월**

학생들 동아리와 북맘스 동아리가 함께 만드는 올해 책 주제를 정하고 학생들 동아리 친구들의 그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6월**

북맘스 동아리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올해의 그림책을 선정하고 펜아트북 만들기를 준비합니다.

**7월**

여름 독서교실 역시 북맘스 동아리 분들과 함께 올해 배움 하신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올해는 모스로 꿈액자, 하바리움과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인생문구 적기를 하였지요

**9월**

2학기 시작하면 북맘스 동아리 분들은 가장 분주해집니다. 펜아트북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도서관에서 분명 회의를 하신다는데 타지역에서 누가 오시면 싸우시는 줄 아시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맘도 얼굴도 이쁘시다는거~ 목소리만 잠깐 클뿐~

**10월**

교내 예술제에 펜아트북과 올해 배움하신 작품들이 북맘 이름으로 전시되고 프리마켓으로 판매됩니다. (똥자루 굴러간다, 난 돼지가 아니야, 감기 걸린 물고기, 빨강머리 토리, 우리집에 용이 나타났어요) 실물을 정말 정말 보여 드리고 싶을 만큼 감탄이 절로 나오는 작품들이라 우리 도서관에서만 전시하는게 너무 아까워요, 달서구청 동아리 행사에도 전시하니 꼭 구경오세요~~

**11월**

가을가을 독서교실, 담Book담Book-day 진월 책의

날 행사가 북맘의 재능기부로 진행 되어집니다. 창업동아리 학생들과 함께한 하바리움 수업이 너무 인상 깊어서 학생들이 너무 행복해 하고 북맘 동아리분들과 스텝 없이 친구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12월**

겨울 독서교실은 몇 년에 걸친 배움 결정판들이 집약된 행사가 북맘동아리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 시립도서관의 사람책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지역대학 박물관 행사를 활용한 행사도 그때그때 진행합니다.

도서관에 부모가 있어야 아이도 도서관이 익숙하고 편하고 즐거운 공간이 될 것 같아 몇 분 어머니들과 시작한 도서관 학부모 동아리가 지역 기관과 연계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더욱 크게 활발히 진행되었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을 8년 동안 쉽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힘은 든든한 북맘스 동아리가 없었다면 진행을 1%로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기에 어머니들이 작게나마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바람 불 때 노만 저어가고 있는 부족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힘 실어 주시는 우리 학교 북맘 동아리분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주욱 사교 칠게요~



# 방정환 특집 서평

방정환은 어린이 해방 운동가이다. 100년 전 아이들은 천대받고 억압당하고 있었다. 방정환이 아동 해방을 외치며 나섰고 그 결과 아동 인식의 일대 전진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 은밀한 곳에서 개별 아동의 학대가 이어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은 시나브로 상품과 교육의 소비자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 존중을 외친 방정환의 정신은 새롭게 환기되어야 한다.  
- 김현숙(아동문학평론가)



〈장편탐정소설 부문〉  
**칠칠단의 비밀**

방정환 글, 김병하 그림, 사계절, 2016.

방정환의 장편 탐정소설이다. 방정환의 최고 인기작이다. 주인공은 무서운 범죄조직 칠칠단으로부터 동생을 구해야 한다. 아슬아슬해서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고, 주인공의 활약이 짜릿하다. 마지막에는 통쾌하다. 주인공은 십대 중후반이지만, 읽기는 쉬워서 4, 5학년부터 읽길 권한다.



〈단편 소설 부문〉  
**만년샤쓰**

방정환 글, 김세현 그림, 길벗어린이, 2011.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나라 대표 동화로 방정환의 대표작이다. 만 년이나 입을 수 있는 샤쓰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난다. 단편 소년소설이지만 김세현 화가의 익살스런 그림을 넉넉하게 넣어 그림책으로 꾸러졌다. 그 덕분에 1학년 빼고는 학교 다니는 아이는 누구든 읽을 만하다.



〈번역동화집 부문〉  
**사랑의 선물**

방정환 번역, 현복스, 2018.

방정환은 동화를 쓰기부터 한 게 아니라 번역부터 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좋은 동화만 골라 한 권으로 묶었는데, 바로 이 책이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제목부터 딱 나타난다.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등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를, 방정환이 어떻게 들려주는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전래담 부문〉  
**시골 쥐의 서울 구경**

방정환 글, 김동성 그림, 길벗어린이,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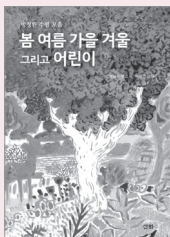
이것도 방정환이 쓴 거라구? 아니 그건 아니다. 원래 있었던 이야기를 방정환이 다시쓰기를 한 것이다. 방정환은 국내외 전래되던 이야기들을 재단장하는 솜씨가 좋았다.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당대 일급 동화구연가였던 그의 실력이 이 책에서 확인하는 맛이 쏠쏠하다.



〈여러 부문의 방정환 글을 단행본으로 낸 것〉  
**사월 그믐날 밤**

연희경 엮음, 우리교육, 2012.

방정환의 창작동화, 소년소설, 전래담 재화, 번역동화, 수필, 동요와 동시까지 고루고루 모인, 종합선물세트 같은 책이다. 방정환의 문학세계를 빠르게 파악하게 한다는 게 이 책의 장점이다. 이런 책은 엮음이 역할이 중요한데, 이 책 엮음이는 방정환전공자답게 좋은 작품들을 골랐다.



〈수필집 부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어린이**

연희경 엮음, 이상권 그림, 산하, 2019.

수필로 치자면 또 방정환이다. 수필에 해당하는 방정환의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여기서 대놓고 아이들을 향해 쓴 수필만 추리고, 다시 그중에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알려주고 저런 것도 느껴보라고 챙겨주던 방정환의 목소리가 잘 묻어나는 수필들을 모은 책이다.



〈어린이 인권 부문〉  
**오늘은 어린이날**

오늘 글, 송진욱 그림, 책속물고기, 2016.

어린이 인권에 대한 안내서이다. 어린이 인권하면 방정환을 반드시 꼭 꼽게 된다. 왜? 방정환은 아동해방 운동가라서 그렇다. '아이눔'이라고 부르기 일쑤이고, 아이의 생각이나 마음 따위는 눈썹만큼도 관심 없던 방정환 시대의 어른들,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속사정을 알려주는 책이다.



〈평전 부문〉  
**방정환 어린이 세상을 꿈꾸다**

오진원 글, 김금숙 그림, 한겨레아이들, 2016.

방정환을 소개하는 책이 꽤 많다. 저마다 공들인 책들이다. 그 중 이 책을 고른 까닭은, 이 책이 방정환이라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던 그 시절에 방정환은 어떻게 아이들을 귀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로 어린이 잡지를 만들었는지 고루고루 꼼꼼하게 살펴주었다.



〈정보 부문〉  
**방정환 정보**

방정환 글, 방정환재단 엮음, 창비, 2019.

방정환의 모든 글을 다 모은 책은 2019년에서야 비로소 만들어졌다. 바로 이 책이다. 이 전집은 5권짜리이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쓰인 방정환의 동화, 동요, 동시, 시, 동극, 아동소설, 소설평론, 산문 등의 글을 오늘의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현대어로 바꾸면서도 방정환 글 특유의 분위기를 지켜나갔다. 방정환을 사랑하는 사람의 필독서이다.

## 전통문화 즐기기 베스트 세트

1. 시리즈 대표작 다섯 권 + 워크북을 가벼운 무선 제본으로!

60,000원 양장본 정가 → 33,000원 무선 제본 세트

2. 교과 과정의 핵심 키워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초등 필독서

경복궁에서의 왕의 하루 | 세상을 보는 눈 지도 | 바람소리 물소리 자연을 닮은 우리 악기 | 햇빛과 바람이 정겨운 집 우리 한옥 | 달빛 하늘빛 담은 천년의 예술 우리 도자기  
+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워크북





# 내가 권하는 책

이번 내가 권하는 책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5월과 6월 학도넷 만남과 바람을 진행하면서 만난 책들이다.



**태극기를 든 소녀**

황동진 지음, 박미화 그림  
그레이트BOOKS, 2019년 2월



**김란사,  
왕의 비밀문서를  
전하라!**

황동진 지음, 초록개구리  
2019년 2월



**서간도에 들꽃피다  
(1-10)**

이윤옥 지음  
도서출판 얼레빗, 2011~2019년

나는 예전부터 일제강점기 당시, 남성들이 아닌 여성들이 독립운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유관순 열사뿐이었기도 하고, 대부분 남성이기도 했으니까. 생각해보면 강인하고 자유로운, 독립적이고 강단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 여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기 일보 직전에서 가만히 있었겠는가?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었으리라. 하지만 유관순 열사를 제외하고는 잘 알려진 여성이 없다는 게 한탄스러울 때, 학교 사서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태극기를 든 소녀”는 내 시선을 끌었다. 아니다. 끄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사로잡았다. 보색 효과를 잘 활용한 예쁜 일러스트는 물론이거니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형식을 가진 이 책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내게 읊어주었다. 모든 분들의 삶이 누구보다 자랑스러웠고, 누구보다 안타까웠다.

가족을 잃고, 아끼던 판아들조차 일본의 모진 고문으로 떠나가 깊은 슬픔 속에 돌아가신 윤희순 의병장, 일본의 감시를 따돌리고 왕의 밀서를 베이징에 전달하셨지만 끝내 검게 변한 시신으로 발견되신 김란사 선생님, 끔찍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독립 후원금까지 모아 임시 정부에 보내셨으나 배신자로 인해 돌아가신 김마리아 여사님, 김란사 선생님의 제자이자 3·1운동의 불꽃, 여성 독립 주자의 대표이지만 끝내 고문으로 떠나간 유관순 열사, 독립군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으며 독립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을 세 번이나 자르신 남자현 독립군, 여성의 교육이 막힌 조선에서 일본에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최초의 여성 조종사가 된 권기옥 비행사까지. 나라의 독립! 그 하나를 위하여 목숨조차 아끼지 않은 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 한탄스러웠고, 이런 노력들을 짓밟아 가면서까지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려 한 일본에 분개했다.

이 책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한다. 하마터면 모르고 살았을 여성 독립 운동가들을 만나는 계기를 주신 사서 선생님께도 감사한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한 몸 바치신 6분에게도 감사한다. 새삼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격스럽다. 가려지고 숨겨졌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며, 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을 조심스레 권해 본다.

-허은우(서울 등명중학교 2학년)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그러다 보니 언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행사가 많았다. 특히 서울교육박물관에서는 여성독립운동가 특별전이 진행되었다. 여성독립운동가라 하면 우선 유관순 열사를 뽑을 것이다. 우리는 또 누구를 알고 있을까? 특별전에서 만난 낯선 여성 독립운동가는 우리나라 최초 의병장 윤희순, 여성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최초 여성비행사 권기옥, 영화에서 알려진 남자현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 김란사까지.

『김란사, 왕의 비밀문서를 전하라!』를 만나건 이쯤이다. 책 표지 그림에는 핑크색 모자를 쓰고 파란색 코트를 입고 파리의 에펠탑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여성이 있다. 100년 전 왕의 밀사가 되어 파리로 향한 여성 그가 바로 김란사다.

“지금 이 방 안이 어두운 것처럼 배우지 못한 나의 인생도, 이 나라의 미래도 어둡습니다. 장차 나라를 이끌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려면 어머니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발 도와주세요. 꺼진 등에 불을 켜게 해주세요!”

그녀는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움이라는 어려운 길을 개척하고 남다른 교육관으로 유관순 열사와 같은 훌륭한 제자를 배출하였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위풍당당한 삶을 사셨다.

책은 세밀하고 간결한 그림과 함께 그녀의 일생과 업적이 이야기 형식으로 펼쳐져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읽혀진다.

작가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공부하면서 김란사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 한다.

100년 전, 우리나라의 독립과 여성교육을 위해 평생을 바친 김란사!

여성에게 굳게 닫힌 영역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가슴에 품은 뜻을 펼친 김란사!

그녀를 기억해 주었으면 하며 마무리한다.

작가의 다른 작품 『태극기를 든 소녀』에서도 위에 언급한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다.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강했던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이재경(경기 발안중학교 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독립운동가는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 다섯 손가락을 꼽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이윤옥 작가는 우리나라의 여성독립운동가를 찾아 알리는 일에 사회가 너무 소홀했음을 인지하고 이들을 찾아내어 사람들이 항상 곁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시집을 만들었다.

이 시집의 구성은 여성독립운동가의 일생과 그녀들에 대한 시인의 시가 한 묶음으로 총 20명의 여성독립운동가를 1권의 책으로 묶었다. 2011년 1집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10집까지 냈으니 200명의 여성독립운동가를 우리에게 알린 셈이다.

시인은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글을 쓰려고 마음먹었으나 자료가 턱없이 부족해 자료수집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여성독립운동가의 뿌리를 찾아 그들의 고향을 방문하고, 잊혀진 무덤을 찾기 위해 수풀을 헤치며 다녀야 했다. 뿐만 아니라 상해에서 중경까지 6천km, 도쿄 2.8독립선언의 장소인 도쿄 YMCA는 물론 시모노세키를 거쳐 기타큐슈의 치쿠호 탄광, 도쿄 아라카와 강변의 조선인 학살 현장까지 기나긴 여정을 이어가며 우리 독립운동의 현장을 찾았다.

이 책에 실린 여성독립운동가로는 김구의 어머니인 곡낙원, 최초의 여자 비행사 권기옥, 수원 기생이었던 김향화, 임진한 몸으로 폭탄을 던졌던 안경신, 의병대장 윤희순 등등 남자 독립운동가 못지않은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켜내는 첨병 역할을 한 분들이다.

서문에 밝힌 한 여성독립지사와의 만남을 보자.

“현재 생존 독립지사인 오희옥 애국지사는 수원의 13평 아파트에 살고 계셨다. 오희옥 지사의 할아버지는 의병장인 오인수, 아버지는 광복군인 오광선, 어머니 정현숙(정정산), 언니 오희영, 형부 신송식 등 온 가족이 독립투사였다. 그러나 이들이 투쟁해온 역사를 정리한 변변한 책자 하나 없었다. 낡은 종이 상자에서 낱장의 복사물을 꺼내 보이는 오희옥 애국지사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면서 빛바랜 사진 속 영웅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한 분 한 분의 활동을 읽다 보면 몸과 마음으로 평생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으나 지금, 현재 우리들은 그들을 기억하는가! 되게 한다.

-박영옥(학도넷 운영진/전 연지초등학교 사서)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금주(대구 대곡중학교 사서)

**소식지 발행의 긍정적 효과**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중심이며 심장이다. 독서교육을 중심으로 퍼진 활동을 기록하고 담아 학교도서관 소식지로 탄생된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한다. 우리 모두에게 정신적 내면의 성장 변화를 알 수 있는 힘의 뿌리이다. 더불어 생각의 폭을 확장하는 자료로 학교도서관 소식지가 최고이다. 영상보다 활자를 읽으면 비판적, 창의력 활성화와 장기기억의 효과도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 소식지의 매력적인 소통이야말로 ing~를 외치며 다음 호를 꿈꾼다.

**소식지 발행에 가장 어려운 점**

지식 결정체의 꽃은 학교도서관이다. 그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향기로운 꽃을 피어낸다. 향기를 널리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서 선생님과 도서부가 중심이 되어 1년에 4번 발행한다. 한 줄을 위해 고민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도서관 소식지는 학교도서관을 더욱 빛낸다. 욕심을 내자면 좀 더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님들이 기다리는 소식지가 되었으면 한다. 다양한 학교소식과 정보를 가득가득 담아 지역사회까지 전하고 싶다.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일**

학교도서관에서 예쁜 도서부(16명)들과 한 달 1번, 독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금 아쉽다. 개인적인 독서모임(독서아카데미)에서 책을 읽고 나누며 서평도 쓴다. 배운 것을 나누며 소통하고 싶다. 학교 내 희망 학생들과 교직원 독서모임, 학부모 독서모임을 하고 싶다. 좋은 책을 낭독하고 작가에 대해 알아가는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도서관 사서이다. 2020년에 지역사회에 좋은 책을 알리고, 만들고, 서평쓰기 대회도 하고 싶다.

**제안하고 싶은 말이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2009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10년이 지난 사실에 살짝

놀랐다. 지금까지 많은 인연들과 만남과 헤어짐이 학교도서관이란 공간이어서 감사하다. 책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물들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점점 짙어지며, 책의 향기를 더해가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면서 사서가 참 좋다. 21세기는 디지털시대이다. 모든 정보가 빠르게 지나가지만 책 속의 좋은 문장과 글귀는 변하지 않고 중심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빛바랜 도서관 소식지에 환한 조명을 밝혀주신 학도넷에게 감사드립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

**성남 송림중·고등학교소식지 서통관통(書通館通)**

김경진(성남 송림중고등학교 사서)

**소식지 발행의 긍정적 효과**

- 1) 도서관 활동의 소개 및 도서관 이용 관련 정보 제공
- 2) 중·고 공동사용도서관으로서 중·고 간 상호 소통의 통로
- 3) 신입생 대상의 도서관 이용지도의 활용 매체
- 4) 양면 컬러 인쇄의 한 장짜리 소식지로 가독성 및 관심 증대의 효과
- 5) 한 학기의 도서관 업무 및 활동을 정리하는 기회
- 6) 제작비용을 중학교에서 1학기, 고등학교에서 2학기에 집행하므로 예산의 부담이 적어 지속적으로 발행 가능
- 7) 북클럽 활동 중인 학부모의 참여로 학부모의 관심 증가와 자연스러운 도서관 홍보 역할

**소식지 발행에 가장 어려운 점**

- 1) 도서관 소식지 제작에 대한 일부 교사의 무관심
- 2) 소식지에 대한 반응이 적어, 만든 사람의 수고가 무시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음.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일**

- 1) 독서 및 도서관 관련해서 학생과 교사의 자발적 투고
- 2) 인터뷰 기사

**제안하고 싶은 말이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도서관 소식지가 점차 감소되는 상황에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소식지의 제작을 학생들의 눈과 관심을 끌어당기는 포맷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재질의 종이에, 글보다는 사진이, 흑백보다는 컬러로 만들고, 이에 따른 예산 요구 시 관리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신광 교사 독서회' 1년을 지내고...**

정룡(신광여고 수학교사)

**독**서 동아리에 가입한 지 1년, 교사가 되면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수업과 업무를 하다 보니 마음대로 읽게 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무엇인가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사독서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고, 지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이상 정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서회 활동은 모임 선생님들이 각 3권의 책을 추천하고, 추천된 33권의 책 중 다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도서부터 10권을 순차적으로 읽고,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모입니다. 따라서 '아몬드'와 같은 청소년 소설부터 과학, 역사, 인문, 건축 등 다양한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신입회원으로서 첫 번째로 토론한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이정모)'입니다. 과학 이야기가 깊이 있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과학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론에는 꼭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도출하는 저자의 의식의 흐름이 굉장히 논리적이며, 적당한 과학 관련 이야기를 소설가 못지않게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의 토론 도서 정재승님의 '열두 발자국'은 선택, 결정 장애, 결핍, 놀이, 미신 등에 대해 한쪽 방향이 아닌 다른 쪽 관점도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재미있게 이야기해주셔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독서 동아리를 하면서 같은 책을 읽더라도 나와 전혀 다른 느낌,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전에는 책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완독했다면 지금은 완독 후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불어 나의 생각도 정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독서동아리가 활성화되어 더욱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 책만남도 인연일 듯

박금홍(순해설가)

나는 늦둥이로 태어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다. 귀염은 받았지만 늘 존재감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다. 내 삶의 과정에 영향을 끼친 책이 어디 한두 권이었겠는가... 하지만 독서가 내게 미친 사건은 좀 일찍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으로 기억된다. 책읽기를 좋아했던 큰 누나가 결혼을 하면서 두고 간 책 중에 표지도 찢긴 채 굴러다니던 너털해 진 책을 우연히 주워들고 읽기 시작했던 것 같다. 당시 도시에 사는 친척분이 과일호 어린이 잡지를 모아 줬다가 방학 때면 갖다 줬기 때문에 읽을거리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어른들의 관심을 끌어 볼 참으로 책을 그냥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책 속으로 점점 빠져들었고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끝까지 읽었던 것 같다. 방학이 끝나고 4학년 수업을 듣는데 뭔가 내가 달라져 있었다. 교과서가 너무 싱거웠고 선생님 얘기는 너무 쉽게 잘 들렸다. 부작용이라면 수업 진도가 너무 느려 늘 헛생각에 빠져 들고는 했다. 달리 얘기하면 많이 건방져진 것이다.

그 후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그 책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어려서 보았던 그 책이 푸시킨의 장편소설 '대위의 딸'이란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1700년대 제정 러시아 뿌카초프의 난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 철부지 젊은 군인이 성장하며 겪는 세상사와 우여곡절 한 연애사가 내용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뒤 내 머릿속에서는 정보처리 속도가 빨라졌고 사람들 앞에서 내 자아를 분명히 하는 존재가 되었다. 달리 얘기하면 약간은 빠릿빠릿해

졌고 약간은 고분고분하지 않은 아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소설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어린 나를 매료시킬 영웅도 없다. 등장인물들의 낯선 이름이 나를 괴롭혔을 것이고 맛있게 순행되는 전개에는 긴박감도 없다. 내기 당구 게임이나 생사를 건 결투 장면 정도는 조금 긴장했을까? 우연적인 요소로 절체절명의 상황이 해결됨으로써 안도감을 느끼고 또 해피엔딩에서 나는 감동을 받았을까? 소설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과 외재하는 여러 요소들 그러니까 작가적 배경이나 시대적 반영과 독자에게 미치는 효능들만이 독자를 변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

빠릿빠릿해진다는 것은 컴퓨터로 얘기하면 주기억장치(RAM) 즉 작업공간이 확장되는 것이다. 당시 나는 아마 나이에 맞지 않은 사고의 양을 처리하느라 많이 버벅거렸지만 그 과정에서 내 사고의 작업공간에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나이가 들어가며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이 작업 공간은 서서히 확장을 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비교를 시작으로 정신연령에 맞는 비판의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사고의 작업 공간이 확장된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주체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한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불행하게 지냈다. 담임 선생님과 늘 불화를 겪었고 선생님을 비롯한 다수의 어른들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불신감도 갖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당시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도 한 인격체이고 스스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시해서는 안 될 사고의 개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당시의 일부 선생은 아이에 대한 그러한 배려가 없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처음 겪은 변화는 독서로부터였다. 독서는 인격을 갖추게 하고 지식과 정보를 얻어 갖게 하지만 또한 책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 스스로의 변화를 겪게 한다. 푸시킨의 작가적 능력은 어린아이까지도 붙잡을 수 있는 이야기의 전개에 있다. 덕분에 나는 책을 놓지 않았고 무척이나 힘든 과정을 통해 어제와 다른 나의 변화를 얻을 수 있었다.

큰 누나가 남기고 간 책이 도스토예프스키였다면 어땠을까?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부모

### 시작하길 잘했다, 북맘스 리딩!!

전미현(대구진월초등학교 북맘스리딩동아리 대표)

진 월초등학교 학부모동아리 "북맘스 리딩"은 2012년 처음 만들어져 매주 화요일 수업시간 전 8시 40분~8시 50분까지 1, 2, 3학년을 대상으로 각 반에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아리입니다. 처음 시작한 학교 책읽기 동아리였으나 현재는 지역구청 평생학습동아리에堂堂히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격년제로 구청의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수업을 듣고, 또한 배움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재능기부로 나눔을 행사하는 봉사를 실천하기도 하며, 펜아트북을 만들어 학교에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책을 멀리하지 않고, 친근하게 재미있는 상상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펜아트북은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고, 대여율이 높은 책을 골라 단순히 만들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서 다양하고 쉽고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모두들 힘을 합쳐 만들어 아이들에게 협동심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동아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2016년부터 동아리맘들의 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 만들기입니다. 이 또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빨대와 종이접기의 동그라미, 우유곽의 네모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덧붙여 멋진 작품이 탄생하였으며,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끝 무렵에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펜아트북과 학교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2019년 나의 알사탕이라는 주제로 총 4권의 책이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도 동아리분들과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책읽기 조차 겁이 나고, 떨렸었는데 현재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상상을 심어주고, 모두 힘을 모아 책도 만들고, 재능기부도 하며 뜻깊은 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있어 모두들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